

극장의 구성 원리와 도시 개념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Seoul Performing Art Center 국제 공모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ity Between the Theatre's Composition Principle and Urban Concept

- Focused on the Productions that are Applied for International Ideas Competition
for the Design of the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

임종엽* / Lim Jong-Yup

권익현** / Kwon Ik-Hyun

Abstract

Stages, in the theatrical spaces, were space, which incorporates aspects of cities. Hence, the stages have been constituted to materialize sequence of city, which has exact number, proportion and order of ideal city. In addition, it has accomplished change, which depends on type of performance with the social condition and culture of generation, city has.

However, the original form of theatrical space were forgotten on account of the various changes of theatrical form with modern movement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and theatrical space, which does not relate with its space of city, was started to constitute. Particularly in contemporary society, the theatre can give vitality to the citizens, and also theatrical architecture as a commercial code has been a general form, though it takes important role, which improves cultural value with technical improvement of cities development of society.

Thus, this study analyzed urbanity ,which theatres have incorporated historically, and deduced a correlativity from to be based on constitution of space in visual, perceptual, spatial constitution and functional role. Focused on published SPAC international competition, it was interpreted by contemporary focus, therefore, this experiment suggests constitution of theatrical spaces of information, takes urbanity, through to analyze visual, perceptual, spatial constitution and functional role in context of contemporary city.

키워드 : 극장, 무대, 객석, 포이어, 도시 개념, 시지각, 프로그램

Keywords : Theatre, Stage, Seat, Foyer, Urban Concept, Visual perception, 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 생활에서 공연예술은 도시민의 삶의 형태의 변화로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있고, 극장(theatre)은 다양한 공연을 대중이 감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극장은 오래 전부터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 왔으며, 극장이 갖는 형태나 규모는 극장이 세워지는 도시의 조직 형성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서구의 도시에서는 가장 먼저 계획하는 시설 중에 극장이 포함되며,

극장이 그 도시에서 갖는 위치는 사회적 측면, 도시 공간적 측면, 미관적 측면 등 아주 여러 측면에서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근대극운동과 극장형식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현대의 극장은 극장 공간만의 원형적 형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도시 공간과는 관련 없는 극장 공간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도 현대적 극장이 근대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양과 질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¹⁾, 멀티플렉스 극장 형식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극장 형식을 구성하여 다양한 도시 모습에 균일화된 상업적 극장만을 고정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장이 현대 도시 공간에서도 기능적인 역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1)이태은·유길준, 한국현대공연장건축의 무대와 객석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16권 3호, 2000.3, p.29

할 및 도시적 맥락에서의 장소적 의미가 유지되고 있음을 바탕에 두고, 도시와 극장의 관계성을 고찰하여, 현대 극장의 무대 및 객석 그리고 서비스 공간 등의 디자인에서 도시성을 담아내는 디자인을 분석한 사례연구로서, 도시성을 담아내는 극장의 공간 구성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극장 건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을 담고 있는 극장을 기준으로 하되, 무대와 객석, 포이어 공간 등 극장의 주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도시 공간에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사회성과 정치성을 비롯하여 공간적으로 가로, 광장, 공원 등 공공적인 물리적 공간이 도시에서 갖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중심으로 극장 건축에서의 공간 구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극장 공간속에 포함되어있는 도시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며, 도시 속에서 극장 건축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따라 실시된 서울공연예술센터 국제아이디어 공모전²⁾에 출품된 작품들을 극장 건축 공간 구성 요소들을 도시성 및 가로, 광장, 공원 등 도시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석들은 극장의 원형적 형식이 수립되는 시기에서부터 극장의 공간과 도시 공간과의 상관성을 재고해 봄으로써, 다양성과 탈영역성의 현대 도시 속에서 극장 건축의 틀을 재확인하고자 함이다.

2. 극장 건축의 일반적 특성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는 최초의 공연이 이루어진 시대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³⁾ 기원전 6세기경부터 공연의 장소가 신성한 장소이기는 했으나 신전이 아니라, 공연예술이 행하여지는 무대 공간을 갖고 있는 특별한 건물로서의 극장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⁴⁾

장소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극장은 구경하는 장소다. 무대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관람하며 즐기는 장소이다. 이 공연과 관

2) 문화 및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대지 면적 116,373 m²(35,203py)의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청소년야외음악당 등 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아이디어 공모(International Ideas Competition for the design of the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본 논문에서는 임의로 이를 줄여 SPAC라 칭하도록 하겠다.)를 개최하여 2005년 7월 29일 Best Selection 5작품을 포함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3) Phyllis Hartnoll에 의하면, 배우, 감독, 관객을 연극에서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로 정의하고, 이러한 본질적 요소가 없는 행위들은 종교라든가 사회에 대한 의식일 뿐 연극이 아니라고 하였다.

4) G. B. Tennyson에 의하면 초기 회랍의 극장은 B.C. 6세기 후반에 이것은 아테네에 있는 디오니소스극장으로 그곳에서 B.C. 534년 회랍의 비극시인인 테스피스는 기록상으로 최초의 희곡상을 획득했다.

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가장 기본이 되며 또 주를 이루는 것이다.

극장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와 그 부대시설이 필요하며, 무대장치와 의상의 보관에 필요한 공간, 출연자들을 위한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위한 공간이 현대에 와서는 무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대에서 상연되는 극의 종합적인 성격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극의 효과를 내기 위한 무대장치를 위해서는 미술이 이용되고, 건축술이 쓰이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명이나 음향을 위해서 고도의 전자기술을 요구한다.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극장 자체가 절충적이고, 집약적이며, 복잡적이다. 극장은 그 안에 모든 예술의 형태를 모으며, 개개의 하나뿐 아니라 집약적인 전체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극이 오락적, 예술적인 성격을 더해감에 따라 관람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관객들이 공연을 예술적인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사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관람부분의 시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하였고, 건물 그 자체가 무대 못지않게 중요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극장이 극과 함께 항상 인간의 발전을 따르고 인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로 극장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특히 현대에 와서 연극의 역할이 문화적 차원에서 높아짐에 따라 도시 공간에서 극장의 존재도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3. 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도시성은 도시 생활, 도시의 경향, 속성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다. 도시성은 도시민의 개인적인 행위와 한 시대의 공동의식 뿐 아니라 시대적 혹은 역사적 공동체적인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도시는 이러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에 대한 공간적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공간 구조는 도시민들의 단순한 사회생활의 공간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3.1. 도시의 사회적 측면

고대 도시가 종교적 관점에서 형성되었다면, 절대주의 정치 권력 하에서는 통치자의 무한한 권력이 표출된 기하학적 도시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세계가 일련의 기하학적 질서의 무한한 확장으로 이해되던 추상적 분석과 지성적 명확화의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시간·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였던 바, 이러한 무한 확장하는 시공간적 상상력은 부와 권력의 무한 증식이라는 사회적 욕망과 병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도시는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인구와 시가지 팽창을 경험한다. 19세기 자본주의적 도시화는 투기적

인 격자형 계획과 대중 교통 체계의 확대로 집약된다. 이러한 도시는 그 내부에 공간의 이중적·계급적 분할을 배태하고 있었다.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 부유한 부르주아의 거주 지역과 더럽고 비좁으며 매연, 악취, 쓰레기가 넘쳐나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프롤레타리아 거주 지역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도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공장과 빈민굴에 몰아넣음으로써 무한한 공간적·지역적 팽창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고 팽창케 하는 자본은 도시 공간을 끊임없이 구획하고 정리함으로써 인간의 부정형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질서 지우고 통제하는 도시 공간의 한 요소가 되었다.

3.2. 도시의 공간적 측면

(1) 도시의 광장 개념

적어도 서구의 도시는 항상 중심에 도시 광장이 있고, 지역 광장이 있으며, 주택을 둘러싸는 중정이 있다고 하는, 광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생활이 정립되어 있다. 고대의 도로나 아테네의 도시 구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장은 액티브한 도시의 생활을 결합시켜 도시 전체의 생활을 긴밀하게 하는 공간이다.⁵⁾ 어떤 가로를 거닐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광장에 도달한다는 거리의 구성도, 또 구부러진 작은 길을 걸어가면 돌연 훤히 뚫린 광장이 나온다는 공간의 성격도 유럽의 도시에 있어서 광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공공시설은 광장에 따라 배치되고, 광장이 사적인 공간을 도시적인 공간으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광장은 사람들을 집합시키기 위한 상징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시대의 아고라는 민주적 공간 개념이며,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존재하였고 특히 로마 시대의 포럼은 도시 개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중세 초기에는 좁은 광장이 특징이었으며, 공동 사회 정신에 의한 시민 행사 공간의 필요와 경제적인 교류에 의한 교역의 장소로써 존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비록 광장이 중세에 비하면 기능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 광장을 도시 개조와 더불어 중세의 광장을 르네상스식으로 개조하며, 미학적인 양상을 부여하였다. 바로크 시대에는 강력한 정치 권력에 의해 대규모 광장들이 발생하고, 도시 광장의 개념이 광장을 중심으로 개개의 주택들의 배치를 기초로 하며 웅장한 전체적 모습을 형성하려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시 부르주아 계급의 적절한 표현법으로 받아들여졌다.⁶⁾ 동시에 르네상스의 미학체계는 더욱 발전되어 적용되었다. 산업혁명 이후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가로가 확장이 되고 광장의 개념이 점차 가로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광장은 넓게 트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서로간의 관계와 접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시 유형과의 연관성은 다소 모호한 형태의 단편들로 존재하게 되었다.

(2) 도시의 거리 개념

도시 공간에서 거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진다. 운동체 계로서의 두 지점의 연결성 개념과 도시 기능의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간영역으로서의 장소라는 개념이다.

전자에 있어서, 근대 도시에서 보여지는 지극히 기능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두 지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속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도시민의 경험의 연속성을 말한다. 경험의 연속성은 도시 공간속에서의 움직임이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의 본질과 형태에서 비롯된다. 슐츠(Norberg-Schulz)는 이러한 연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결은 단순히 도시의 점착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행위 단계를 융합함으로써 인한 행위이고 도시에 물리적 형태를 만든다..... 도시 디자인은 분리된 사물들 사이를 알기 쉽게 연결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각 부분을 이음으로써 알기 쉬운 매우 큰 실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⁷⁾

또한 광장이 사람들을 집합시키기 위한 상징이라면, 거리는 도시 기능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다.⁸⁾ 거리는 중간 영역으로서의 공간이며 거리의 양측은 공유공간으로서 사용되었던 반공공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것은 공공영역인 아고라나 광장과는 다른 공간의 질이다. 결국 가로는 여동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가로운 보행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장소인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만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공간인 것이다.⁹⁾ 하지만, 근대 도시에서는 거리가 너무나도 기능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경계로서의 성격만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다시 전통적인 길의 개념이 중요시 되고, 건축물이 세워진 후의 잔여지가 되기보다 거리와 건축물이 만드는 하나의 공간적 실체로 구성되어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⁰⁾

(3) 도시의 공원 개념

공원의 초기 형태는 초기 도시 주변에 중상계급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이었다. 이후, 도시의 공원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도시민의 휴식을 위해 자연환경을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적인 여흥이나 오락을 제공하려는 이유에서이다. 전자는 점차 과밀화되면서 악화되어가는 도시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이상향적 이미지를 모델로 한, 쾌적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상태는 도시민들에게는 이상향과 동일시되었다. 이후 한편으로는

5)黒川紀章, 편집부 역, 중간영역으로서의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96, p.67

6)Jonathan Barnett, 이정형 역, 도시 디자인의 근대사, 도서출판 국제, 1997, p.15

7)Norberg-Schulz, Genius Loci, p.7

8)黒川紀章, op. cit., p.33

9)박진영, 마른내길 가로경관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1989

10)손장원, 도시가로 보행자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02,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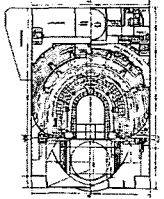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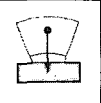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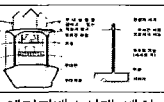


중산계급에 의한 교외화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 곳곳의 공원이 도시 계획단계에서 확보되었다. 후자는 도시와 공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도시민의 지적 호기심과 쾌락의 욕구를 채워주는 새로운 도시적 여흥거리가 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의 압축된 풍경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공원과 극장의 현대적 관점에서 의미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극장의 도시성을 언급하면서 공원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4. 극장의 공간 구성과 도시 개념의 상관성

4.1. 극장과 사회적 의미의 상관성

극장은 근본적으로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지각에 따른 객석의 서열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서열화는 도시의 사회성을 담고 있고, 종교적 성향이 짙은 시대에는 종교적 의미에 따른 극형식과 극장 공간의 변화가 있어왔다. 또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기념비성을 지닌 건축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이는 과거의 것을 형태적으로 복원하거나, 과거의 공간적 특성을 성장하는 도시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대와 객석의 관계는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서 공간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극장과 사회적 의미의 상관성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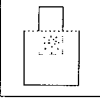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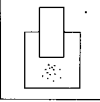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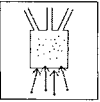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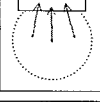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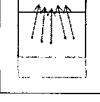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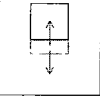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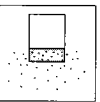
<표 1> 극장과 도시 사회적 개념의 상관성

| 도시의 사회성 | 대표 사례 | 공간 구조 | 특징 |
|---------|-------------------------------------------------------------------------------------|-------------------------------------------------------------------------------------|-------------------------------------------------------------------------------------|
| 정치적 개념 |  |  | 시지각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있어서, 객석의 위치에 따라 서열화되는 극장 구조와 모든 객석이 동등한 입장이 되는 민주적 극장 구조 |
| | 그릇세 사우슈피엘하우스 | 무대의 한곳으로 다방향에서 집중하는 공간 | |
| 종교적 개념 |  |  | 시지각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되 수평적 흐름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배치와 수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공간적 위계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배치 |
| | 만시옹 배치 | 수직적인 종교적 의미 부여 | |
| 도시 기념비성 |  |  | 전통적 극장 유형의 복원을 통하여 기념비성 표현하는 방식과 시 지각을 통한 기념비로의 역할을 위하여 도시 구조를 변화 시킴 ¹¹⁾ |
| | 엘리자베스시대 배치 | 극장을 위한 도시조직 변화 | |
| |  | | |
| | 파리 오페라극장 독일 아헨극장 독일 마인츠 시립극장 | | |

4.2. 극장과 광장의 상관성

광장은 도시 생활의 중심점이 되어 왔다. 또한 극은 도시민의 생활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따라서 무대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장이 도시민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거대한 객석이 되어 왔다. 한편, 포이어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포이어는 극장 내부에서 기능적으로 광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광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극장 공간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극장과 광장의 상관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극장과 광장 개념의 상관성

| 극장 | 대표 사례 | 공간 구조 | 특징 |
|-----|-------------------------|---------------------------------------------------------------------------------------|--------------------------------------------------------|
| 무대 | 중세 교회극 |  | 내부의 무대가 광장화 됨 외부의 프로그램과 도시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을 가짐 |
| | 만시옹 교회극 |  | 광장으로 무대가 옮겨짐 내부의 프로그램과 도시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을 가짐 |
| | 산 피에트로 광장 |  | 광장에서, 무대배경으로서의 극장 시지각을 광장에서 한 곳으로 모음 |
| | 올림피코 극장 |  | 극장에서, 무대로서의 광장 무대와 도시와의 공간적 연속성을 가짐 |
| 객석 | 파르네제 극장 |  | 객석에서 관객 상호간의 community 객석 상호간의 시지각 가능한 공간 |
| | 일리노이대학 다목적홀 |  | 객석이 기능에 따른 불확정적인 영역화가 가능함 |
| | 포춘 극장 |  | 광장으로서의 객석 열린 공간이지만, 객석의 공간적 위계는 수평적으로 존재함 |
| 포이어 | 올림피코 극장 |  | 광장화된 객석 닫힌 공간이며, 수직적으로 공간적 위계가 있고, 무대의 한곳으로 시지각을 집중 시킴 |
| | 오데온 극장 |  | 전이공간으로서 포이어 외부의 포이어가 도시 공간과의 연속성을 가짐 |
| | 파리오페라 하우스 UFA 시네마 센터 |  | 광장화된 포이어 내부의 포이어가 프로그램적으로 도시공간과 연속성을 가짐 |

11) 김형준 외 1, 19세기 유럽 극장의 건축요소와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4호, 2004

4.3. 극장과 거리의 상관성

중세의 극장은 비록 종교적 이유로 인하여 거리로 나오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거리의 연속성 개념과 함께 이동 무대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투시도가 도입되면서 극장은 거리의 모습을 실험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전이 공간적인 거리의 개념은 극장 내부의 전이공간과 그 성격을 같이 하면서 공간적 성격에 있어서도 극장의 내부 공간과 연속선상에 있다. 즉 도시 공간의 거리와 극장의 공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의 행위가 극장 내부로, 혹은 극장 내부의 행위들이 외부 공간인 거리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극장과 거리 개념의 상관성

| 극장 | 대표사례 | 공간구조 | 특징 |
|-----|-------------------------|------|---------------------------------------------------------------------------|
| 무대 | 중세 페이지트 세계극장 | | 이동무대로서의 거리 이벤트를 가진 공간이 흐름을 가지고 도시 공간에 연속됨 |
| | Ideal City Panel | | 가로 경관으로서의 무대 시지각적인 도시 공간의 연속성을 극장 공간에 실험을 함 |
| | 사비오네타 극장 | | 거리와의 연속체로서의 무대 공간적으로 무대 뒷 공간을 거리와의 연속성을 보임 |
| 객석 | 아트레온 | | 객석화된 거리 도시 공간 속에 객석을 두어 도시 공간 속에 고정된 이벤트를 두고, 공간적으로 동일한 영역을 가짐 |
| | Rome Plan of Palma Nova | | 무대를 향한 객석의 형태와 도시 형태 시 지각적인 집중형 구조를 도시 공간에 적용시켜 상징성과 함께 공간적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
| 포이어 | 인스 극장 | | 거리의 연장선에 있는 포이어 거리와 극장의 연속적인 흐름을 두고 선행적으로 확장되는 공간 구조를 보임 |
| |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 기능적인 연결과 역동적 거리 표현에 의해 유기적 연결체로서의 포이어 |

4.4. 극장과 공원의 상관성

건축적 정원¹²⁾은 투시도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었으며, 이에

12)한스 쟈들마이어는 '중심의 상실'에서 프랑스식 정원을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가공하고 배치하여 만들어진 정원을 기하학적으로 배치되고 조성

반하여 풍경식 정원은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망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내부화된 공원의 성격으로 극장과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지각적인 측면에서 극장의 무대와 객석이 가지고 있던 관계가 공원 계획에 적용되기도 하였으며, 현대 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극장 내부 공간에 적용시켜 기존의 무대와 객석 혹은 포이어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틀을 깨는 구성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극장과 공원 개념의 상관성

| 극장 | 대표사례 | 공간구조 | 특징 |
|-----|---------|------|----------------------------------------------------------------|
| 무대 | 프랑스식 공원 | | 기하학적 공원 시지각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대형형 구조의 배치를 보임 |
| | 영국식 공원 | | 풍경식 공원 사건의 흐름이나, 스토리를 두고 시지각을 연속시키는 공간적 구조 |
| | 사자나미 홀 | | 무대배경으로서의 공원 무대 뒷 공간인 자연과 도시적인 흐름을 공간적으로 연속시킴 |
| 포이어 | 스타드 극장 | | 포이어화 된 공원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을 비위계적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유동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

4.5. 소결

극장은 도시 공간, 도시 생활을 구상화하고 있는 연속체이며,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담은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극장 내부 공간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지각적으로 무대는 객체가 되고 객석은 주체이다. 반면에 도시 공간에서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극장의 외부는 도시라는 현실의 무대 배경이 되며, 도시는 또 다른 객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시지각적으로 도시 공간이 극장으로, 극장이 배경으로 전이되는 공간이 도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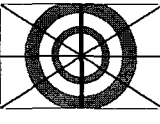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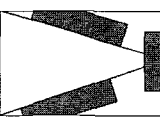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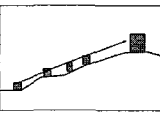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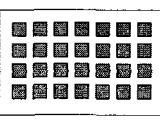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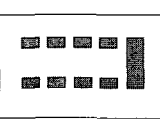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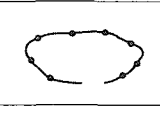


기능적으로도 도시와 극장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극장에서의 무대와 객석 상호간의 커뮤니티와 관객 상호간의 커뮤니티는 도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이 도시 공간 속에서는 영역성을 보이면서 도시 공간의 생활이 구상화되는 연속체의 장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극장과 도시 개념은 시지각적으로 주체와 객체로

되어 건축화 된 정원이라는 뜻에서 건축적 정원이라고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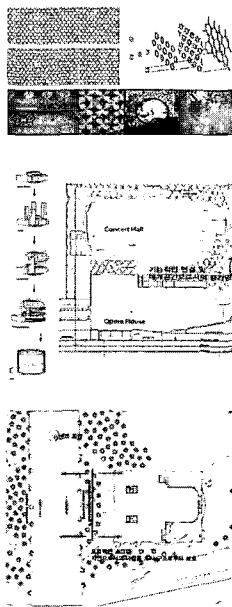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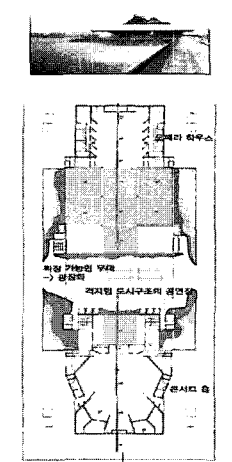
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시지각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기도 하며, 연속적인 장면의 연출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주 공간이 집중되어 있거나 극의 형식에 따라 서사적인 구조로도 나타나며, 이벤트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극장 공간과 도시 개념의 상관성

| 극장과 도시 | | 공간 구조 | 특징 |
|----------|-------------------------------------------------------------------------------------------------|-----------------------------------------------------------------------------------------------|-----------------------------------------------------------------------------------------------------------|
| 시지각적 측면 | 중심성 | 방사형  | 시지각을 한곳으로 집중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이 되는 구조로서 방사형 도시 구조의 모습과 유사하다. |
| | 중심성 | 수평적 집중형  | 시지각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수평적으로 위계가 생기고 이러한 구조는 중세 도시 구조에서 나타난다. 특히 르네상스 도시 구조에서는 투시도적인 방법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준다. |
| | 중심성 | 수직적 집중형  | 시지각을 수직적으로 위쪽에 위치한 곳에 집중시키는데, 이는 그리스 도시 구조에서 신전의 위치와 주거들의 위치와 유사하다. |
| 프로그램적 측면 | 연속성 | 격자형  | 연속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보편적으로 집합주거의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고 근대 도시구조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가로 계획에서 이러한 연속성의 개념을 넣는다. |
| | 중심성 | 집중형  |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배치하는 형태인데, 이는 시지각적 측면의 집중형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
| | 연속성 | 서사형  | 프로그램을 선적으로 배치하고 스토리가 있는 구성을 보인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움직이는 관점으로 배치가 된다. |
| 연속성 | 이벤트 형  | 프로그램이 이동성을 보이며, 이때, 프로그램의 이동에 따라 이벤트의 영역이 생기고 프로그램의 이동에 따른 연속성이 보인다. | |
| | 개별적 비위계형  | 프로그램들의 공간적 위계를 없애고 소 단위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상의 유동성을 나타낸다. | |

작을 중심으로 현대 극장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념을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비록 서울의 도시 구조가 앞서 살펴본 서구의 여러 도시와 극장과는 그 유형이 다르지만, 서울에서도 현대의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적이며 시각적으로 혼성적인 현대 도시적 특성이 보여지고 있으며, 서구의 다른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불확정적인 도시 공간 속에서 극장이 기능적인 역할 및 도시적 맥락에서의 장소적 의미가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대지가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극장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주변의 컨텍스트를 따르는 작품도 많았지만, 대지 자체를 하나의 도시로 간주하여 극장의 구성 자체를 도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작품도 상당수 보였다.

<표 6> SPAC과 도시 개념의 관계

| 개념 | SP AC | 표현 | 특징 |
|--------|---------|--------------------------------------------------------------------------------------|----------------------------------------------------------------------------------------------------------------------------------------------------------------------------------------------------------------------------------------------------------------------------------------------------------------------------------------------------------------------------------------------------------------------------------------------------------------------------------------------------------------------------------------------------------------------------------------------------------------------------------------------------------------------------------------|
| 사회적 개념 | No. 210 |  | 이 작품은 도시를 수직적으로 쌓아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였다. 필드 시설들은 원통형의 타워에 적층으로 구성을 하되, 저층부에 오페라 하우스를 두고, 네 개의 코어를 통해 수직적으로 상부에 콘서트 홀을 구성하였다. 두 개의 큰 프로그램 사이에 서비스 시설을 두어 두 공간을 분리하면서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포이어 부분은 외부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내부로 들어와 두 공간을 완충시키는 녹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수평적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수직적으로 적층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메시지를 한국의 전통 문양을 디테일로 표현한 스킨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한국적 기념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비성의 관점에서 계획 초기에 떠났던 수련의 모습을 형상화 시켰는데, 이 역시 환경 친화적인 상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강 대교를 High Way로 보고,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 이벤트 토템을 배치하고, 도로 옆에 스크린을 설치하였다. 이 스크린은 도로에서의 광고판 역할을 하지만, 메인 건물을 도로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극장 건물은 도시 속에 하나의 자연으로 구성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커를 나누는 계획이 스킨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 | No. 206 |  | 이 작품은 공동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 산에 걸쳐있는 구역을 형상화 했는데, 저층부 녹지는 기존의 랜드스케이프를 최대한 이용하고, 고층부는 서울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 시켰다. 중간에 걸쳐 있는 구름 부분은 기하학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다. 격자형으로 구획된 서쪽의 오페라 하우스와 이 형적인 동쪽의 콘서트 홀은 중앙의 아트리움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특히 양쪽 공연장의 아트리움 부분은 확장 가능한 무대를 두어 양쪽의 무대가 모두 확장이 될 때, 이 공간은 넓은 도시 광장이 된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자연 속에 도시를 수직적으로 끼워 넣은 형태로 자연과 도시를 기념비적으로 구성하였다. |

5. SPAC(Seoul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 개념의 분석

앞서 살펴본, 극장의 공간 구성 원리와 도시 개념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의 서울 공연 예술 센터 공모전의 응모

| 개념 | SP AC | 표현 | 특징 |
|-------|---------|----|----------------------------------------------------------------------------------------------------------------------------------------------------------------------------------------------------------------------------------------------------------------------------------------------------------------------------------------------------------------------------------------------------------------------------------------------|
| 광장 개념 | No. 032 | | <p>여기서는 수직적으로 레이어를 두고, 저층부에 다리와 이어지는 원형 극장과 상부에는 데크, 그리고 최상층에는 노들섬 전체를 고리형으로 감싸고 있는 보도와 함께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 홀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p> <p>도시적인 입장에서 고리형으로 감싸고 있는 보도는 이벤트성의 거리를 표현하고, 이들은 각각의 지점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특히 내부는 광장화 하여, 녹지와 극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고리형으로 감싸고 있는 매스는 투명한 벽으로 처리하여, 비록 형태상으로는 섬을 감싸고 있지만, 내부의 광장과 시각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p> <p>또한, 노들섬 밖의 다리 밖과의 소통은 새로운 보도를 통해서 고리형 매스로 이어지고, 차량 소통은 기존의 도로를 하이웨이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다.</p> |
| | | | <p>이 작품은 계획 초기에 산마르코 광장의 공간적 크기를 노들섬에 가져왔다. 즉, 베니스에서 산마르코 광장의 공간적 역할을 서울의 노들섬에서 가지도록 계획하였고, 이 부분은 주요 프로그램이 삽입되는 매스로 계획되었다. 매스의 중앙 부분에서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 홀로 이어지는 포이어 부분이 큰 보이드와 역동적인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실내 광장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p> <p>전체 배치에서도 다리를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고 있으며 도시적 광장과 자연적 오픈스페이스를 나누고 이들을 연결하는 동선은 도시적 광장의 역할을 하는 매스의 포이어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p> |
| | | | <p>이 계획은 부지 전체에 정사각형 데크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하고 한쪽은 테토닉적 구성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조합하고 마주보고 있는 한쪽은 큰 보이드를 통하여 자연적인 지형이 데크를 뚫고 올라오게 계획되어 있다. 즉, 노들섬을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자연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p> <p>특이할 사항은 수면과 맞닿아 있는 데크의 아래 부분이 수면의 높낮이 변화에 따라 수직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자연적인 변화에 따라 이동식 무대를 구성한 점은 이동식 무대가 가지는 도시 내에서의 이벤트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p> |
| 거리 개념 | No. 237 | | <p>노들섬 전체가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도시로 보고 계획되었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대지 전체에 형성된 바닥면이 모두 변형 가능한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패널 위로 이동 가능한 기계들에 의하여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이동하고 있다.</p> <p>따라서 전체 대지에서 각각의 개별화된 이벤트가 그리드를 따라서 유동성있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영역성도 자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p> <p>이에 따라, 섬 전체가 이벤트 광장이 되면서, 객석과 무대가 특정 영역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거리가 무대이면서 객석이던 중세 거리극장에서 페이전트의 모습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벤트적인 공연이 일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p> |

| 개념 | SP AC | 표현 | 특징 |
|-------|---------|----|----------------------------------------------------------------------------------------------------------------------------------------------------------------------------------------------------------------------------------------------------------------------------------------------------------------------------------------------------------------------------------|
| 공원 개념 | No. 182 | | <p>이 계획은 크게 박스 모양의 현대 도시적 모습을 보이는 데크 부분과 자연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p> <p>데크 부분은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자율적으로 배치되어 프로그램상의 유동성을 보이는 공원의 배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주요 프로그램들은 지하에 배치되어 있다.</p> <p>특이할 사항은 자연적인 부분에 원형 극장을 두어 도시와 떨어져 자연속에 배치되었던 그리스 극장의 배치와 유사하며, 이와 상반되게 데크에 보이드를 형성시켜 원형 극장을 둔 부분과 서로 다른 개념의 원형 극장으로 나타난다.</p> <p>데크에 구성된 원형 극장은 도시 내에서의 광장과 같은 성격으로 지하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간 구성을 보이고 있다.</p> |
| | | | <p>노들섬을 통과하는 다리를 주 도로로 보는 관점에서 계획되었다. 주 도로의 중심에 광장을 계획하여, 도시적 관점에서 시지각을 광장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섬 주변을 둘러싼 매스는 섬을 둘러싸는 스킨의 역할을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킨 속에 들어와 있으며, 내부의 공간은 공원화 되어 계획되었다.</p> <p>섬을 둘러싸고 있는 비정형적인 스킨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대 배경의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를 향한 시지각의 객체가 된다.</p> <p>특히, 내부의 공원은 외부의 스킨을 따라 난 길이 아니라 스킨과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계획되어 동경식 정원의 동선 구조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p> |
| | | | <p>도시적 개념에서 노들섬으로 연결되는 다리는 노들섬 중앙의 광장으로 연결되어 시지각을 중앙 광장으로 집중한다. 그 양쪽으로 도시적 틀인 사각형 프레임은 두는 배치이다.</p> <p>프레임의 내부에는 자연적인 랜드스케이프 개념으로 광장화 시키고, 다시 랜드스케이프의 아래쪽에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진 포이어와 서비스 시설, 대칭적 구조인 무대와 객석이 배치되어 있다.</p> <p>즉, 도시적 개념의 프레임이 길 표면에, 그 안에 다시 자연적 레이어를 두고, 또다시 그 안에 도시적인 레이어를 두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p> |
| 거리 개념 | No. 029 | | <p>노들섬으로 접근하는 길에서 연속적인 이벤트를 끌어내어 대지내로의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스를 2차 형태로 두어 대칭성을 강조하며, 시지각은 중앙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향하게 하였다. 공연장이 위치한 부분은 인공적인 부분으로 설정하고, 다리를 기준으로 반대편은 자연적인 부분으로 설정하여, 자연적인 부분은 미로식 공원이라는 자율성을 강조한 공원으로 두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계획되었다.</p> <p>이러한 자율성은 둘러싸인 내부에서 자연적인 부분과 인공적인 부분 모두에서 자율적인 동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들섬 전체를 광장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p> |

6.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장은 비록 하나의 건축물이지만, 극장 자체가 도시 공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도시 역시 당시의 사회성이나 공간상의 개념을 통하여 극장을 구성하는 무대, 객석, 그리고 서비스 공간인 포이어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지각적 측면에서 연속성과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상호간의 연속성이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극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현대 극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7> SPAC에 나타난 극장의 구성과 도시 공간의 상관성

| 극장과 도시 | | 공간 구조 | 특징 | |
|----------|------------|----------|-------------------------------------------------------------------------------------------------------------|--------------------------------------------------------------------------------------------------------------------------------------------|
| 시지각적 측면 | 중심성 타워형 | | - 시지각적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그리스 신전과 같은 수직적 집중형의 계획 | |
| | 연속성 미디어 | | - 노들섬 밖에서 대지로 진입하는 동안 시지각의 연속을 돕 - 주로 다리에서의 연속적 이미지를 계획하고, 과거의 투시도적 접근 계획이 아니라 미디어 스킨을 사용하여 연속적 이미지를 제공함 | |
| | 다양성 | | - 다양한 시지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치함 - 주로 대지 내의 외부공간에서 나타남 | |
| 프로그램적 측면 | 중심성 집중형 | | - 주 프로그램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로비 및 포이어 공간을 둠 - 로비 및 포이어 공간에서 가변적 무대를 사용하여 공간적 활용도를 높임 | |
| | 연속성 | 서사형 | | - 섬을 둘러싸는 고리형의 루트를 두고 각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도록 함 - 고리형의 루트는 주로 서비스 시설과 맞닿는 거리 개념으로 들어서고, 고리 내부에는 광장과 주 프로그램을 배치함 |
| | | 이벤트형 | | - 이미지로써 노들섬 밖에 있는 곳에 이벤트를 제공함 - 미디어 벽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및 계절에 따른 변화와 공연의 유무에 따라 변화를 줌 -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여 내부 공연을 외부로 노출시킴 |
| | 연속성 | 이동성 | | - 대지 전체 혹은 대지의 일부에 이동 가능한 바닥판을 두고, 프로그램들이 상황에 따라 이동함 - 가능성을 고려해 대개의 경우 바닥판은 격자형으로 구성되고, 주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공간이 이동하여, 유동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광장의 성격이 강함 |
| | | 개별적 비위계형 | | -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으로 배치됨 - 프로그램들간의 공간적 위계를 없애고 다양한 동선을 보여주는 미로와 같은 공간 구성이 나타남 - 자율적인 프로그램 배치에 따라, 프로그램상의 유동성이 보임 |

위 표와 같이, SPAC의 용모작들을 살펴본 결과 시지각적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이 미디어를 활용한 입면상의 변화를 통하여 노들섬 밖에서의 시지각을 강조하거나 타워형으로 계획하

여 공간적 인지도를 높이도록 계획되었다. 반면 과거에 투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지각을 집중시키는 계획은 무대 공간 안에서 프로시니엄 극장의 형태로 나타날 뿐 외부 공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매스 사이에 계획된 광장이나 거리 혹은 공원의 형태이든 대부분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시지각의 연속성 보다는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유동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개념은 과거의 극장과 마찬가지로 시지각적,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었다.

정리하면, 극장은 도시 공간 속에서 공동체의 상징이며, 도시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기능을 했다. 또한, 극장이 도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 결과, 극장은 도시 공간의 디자인 실험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장이 도시 공간 속에서 지닌 공간적 가치를 재해석 하고자, 극장의 공간 구성 원리와 도시 개념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변화하는 건축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극장의 공간 역시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극장 본연의 공간적 가치를 도시 개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극장 건축이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J.L.Styan, 장혜진 역, 연극의 경험, 소명출판, 2002
2. 김지명, 세계의 극장건축, 한국연극, 1997.
3. 黒川紀章, 편집부 역, 중간영역으로서의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96
4. Jonathan Barnett, 이정형 역, 도시 디자인의 근대사, 도서출판 국제, 1997
5. C.Nobrg-Schulz 저, 정영수 역, 서양 건축의 본질적 의미, 세진사
6. Edwin Wilson. Alvin Goldfarb, 세계 연극사, 한신문화사, 2000
7. Bernard Leupen 외 4, 김영애 외 1 역, 건축디자인과 분석, 도서출판 국제, 2001
8. 에드먼드 베이콘 저, 조대성 외 1 역, 도시디자인+도시언어, 정간문화사, 1988
9. Phyllis Hartnoll, A Concise History of the Theatre, Thames and Hudson, 1991
10. Brockett, Oscar G. History of Theatre Boston, Allyn and Bacon, 1991
11. Gaelle Breton, Teatro, Editions du Moniteur, Paris
12. Lewis Mumford, The City in History, a harvest book, 1968
13. Carlson, Marvin, Place of Performance : The Semiotics of Theatre Architecture, Cornell Univ. Press, 1989
14. G.Izenour, Theater Design, McGraw-Hill, 1987
15. Mrvin Calson, the palaces of performance, 2nd.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16. Julius Posener, Zodiac2 Architecture, 1989
17. 이태은 외 1, 한국현대공연장건축의 무대와 객석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6권 3호
18. 박창준 외 1, 중세 극장건축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2
19. 박진영, 마른내길 가로경관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9
20. 손장원, 도시가로 보행자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2

<접수 : 2005. 12. 31>